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경험적 분석

임현진** · 이재열** · 박광민*** · 설동훈****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산업화의 이면에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표집한 일반국민 800명에 대한 경험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실태와 구조, 그리고 안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삶의 질과 안전 모두 다차원의 복합적 구성을 갖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첫째, 삶의 질은 최소한 4가지의 요인으로 분해가 가능하며, 안전은 삶의 질의 주요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 둘째, 인간사회는 모험과 안전의 균형점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균형은 문화나 사회체제, 그리고 하위집단별로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셋째, 안전사고는 적어도 세 가지 집락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사고원인, 사고의 빈도, 문제의 해결방안 등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1. 서론

경제성장은 밝은 면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림자도 드리운다. 한국과 같이 매우 급속한 압축적 근대화를 이룬 사회에서는 성장의 그림자도 그만큼 길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삶의 질: 신체적·심리적 안전"이라는 제목의 3개년 연구과제 중 제2차년도 연구결과이다. 연구조교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임채운 씨와 1997년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이 글의 초고에 대해 꼼꼼하면서도 매우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필동 교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게 드리워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성장의 과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지만, 성찰성을 결여한 산업화는 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양산해냈다(Beck, Giddens, and Lash, 1994). 능률과 속도위주의 발전 전략은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을 방치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무리하게 공기(工期)를 단축하고 자재를 절약하며 지어진 건축물과 구조물들은 일련의 대형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의 성숙단계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초고속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잇따른 가스폭발사고 등 1990년대 들어 빈발한 대형사고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험에 직면한 위험사회(risk society)임을 재확인케 해주었다(Beck, 1992). 일련의 대형사고와 환경의 악화 등은 희생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¹⁾

일본사회가 1995년 고베 시(神戸市)와 인근 효고현(兵庫縣)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처해 나갔던 과정과 비교해 보면(김경동 외, 1995), 우리 사회의 재해 대응 능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人災)였음을 질타하는 글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지곤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사회에서 안전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공학적인 결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심리적·사회학적·조직론적·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1997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늘 안전에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7%에 불과하였고,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6.9%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97. 4. 28).

한국사회는 한편으로 모험추구를 영웅시하는 역동적인 사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상호 모순적인 이념이 공존하는 사회다. 현대 한국사회변동을 특징지어 온 요소들, 예를 들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활발한 사회이동에 따른 계층구조의 급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과 아파트값,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관료의 충원, 권력의 부침에 따른 정권의 변동 등은 우리의 산업화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외형들이다. 기업들도 새로운 이윤창출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빨리 거대한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정부차원에서 주도한 모험형 발전전략이었다.²⁾ 이러한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기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모험을 하였다. 급속한 산업화기간에 달성한 초고속 성장은 사회 곳곳에서 ‘모험추구’를 영웅시하는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냈으며,³⁾ 그 결과 ‘안전’보다는 ‘속도’를, ‘내실’보다는 ‘외형’을, 미래에 부가될 비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비용절약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 된 것이다.

지나친 모험추구가 위험사회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안전추구도 삶의 질을 낮춘다. 지나친 안전추구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의 지출을,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는 독립심을 결여한 과잉보호 아동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강박증(obsession) 환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슈뎀터(Schumpeter, 1976)에 의하면, 모험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가는 시장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축출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은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혁신을 피하는 기업가는 어떤 형태로든 모험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은 정신병의 일종인 강박증을 가져온다. 강박증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반복되며, 이 때문에

2)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당시의 세계경제의 침체에 시도되어 단기적으로는 유신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장기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 안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의 모험적인 중화학공업화는 같은 시기 대만의 시장적응형 경공업중심의 산업화와 대비될 수 있다.

3) 현대중공업이 기본적인 도크(dock, 船渠) 시설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조선수주를 따낸 것은 대표적인 도박형 전략으로 손꼽힌다(Amsden, 1989). 1980년대 후반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역시 이러한 모험추구적 기업경영이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반면,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쏟아 붓고도 기술의 효율성이나 시장예측에서 실패한 사례에 해당된다.

다른 일을 하는 데 방해를 받는 증상을 의미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포함한다. 강박적 행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끌거나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도한 경우가 많다(이훈진, 1989).

삶의 질과 안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안전과 삶의 질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는 일정한 균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삶의 질과 안전에 관한 개념적인 정리를 거쳐, 신체적·심리적 안전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안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연관된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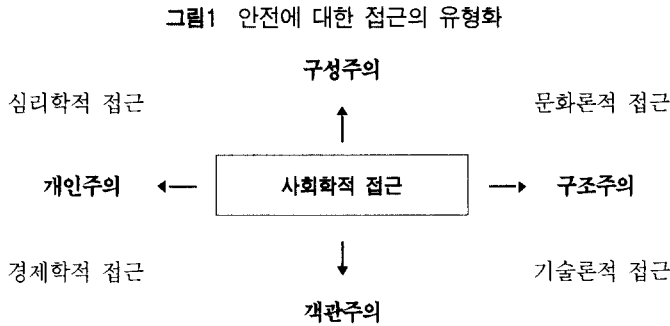
1) 안전과 위험

안전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연구는 위험에 대한 연구와 다르지 않다.⁴⁾ 국내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역시 주로 외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위험에 대한 연구는 기술론적·경제학적·심리학적·문화론적 접근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접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의 의의를 가진다. 안전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틀로 그림1을 사용하고자 한다.

4)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1995: 626)는 안전문화를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를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식을 "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와 구조주의, 그리고 객관주의(objectivist)와 구성주의(constructionist) 접근의 두 축을 교차하여 기존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Renn, 1992: 68).



첫째, 기술론적 접근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복잡한 기술체계나 조직의 안전이 파괴될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행위나 기술적 결함에 의해 특정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기술체계의 와해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술체계의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⁵⁾ 그러나 기술론적 위험분석은 재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인간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또한 인간행위와 결과간의 상호작용관계는 단순한 통계적 확률과 예측된 평균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의 사회적 요소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요인이나 관리체계가 실제 위험을 가져올 조직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Beck, 1992). 기술론적·확률론적·체계론적 위험분석은 위험의 감소는 잘 훈련된 위험전문가에 의해 방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간의 차이가 매우 강조된다. 그러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위험최소화라는 단일한 차원에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형평, 유연성, 그리고 사회적 역동

5) 한국의 기술체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윤조덕 외(1996)가 있다.

성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학적 접근은 합리적 행위자모형을 상정한다. 경제학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것은 효용(utility)의 개념이다. 기술론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분석에서도 물리적 피해가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단, 예측된 피해 대신 예측된 효용을 고려함으로써 경제학적 위험분석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떤 형태의 결과든지 만족이나 불만족의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심리적 혹은 사회적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다음, '개인적 만족의 정도'라는 공통분모가 다양한 선택지들 간의 위험과 반대급부간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케 해준다. 위험은 실제비용이라기보다는 예측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험을 모델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성과 결부해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적 위험분석에서는 비용-편익(cost-benefit)의 관점에서 위험은 곧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측되는 효용의 감소'로 정의된다.⁶⁾ 그러나 경제학적 분석은 개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곧 최적의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public goods)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공공재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효용함수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간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위험이 제3자에게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경제학적 모델의 적합성이 문제가 된다. 경제학적 모델은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과 효용의 윤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타적인 희생을 모형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김종길, 1996: 813~816). 예를 들어 효용의 윤리에 기반하면, 쓰레기처리장을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연계를 맺게 마련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온갖 혐오시설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효용의 윤리에 의하면 정당한 것이다.⁷⁾

셋째,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의 확률에 대한 선호와 왜 사람들이 예측된 가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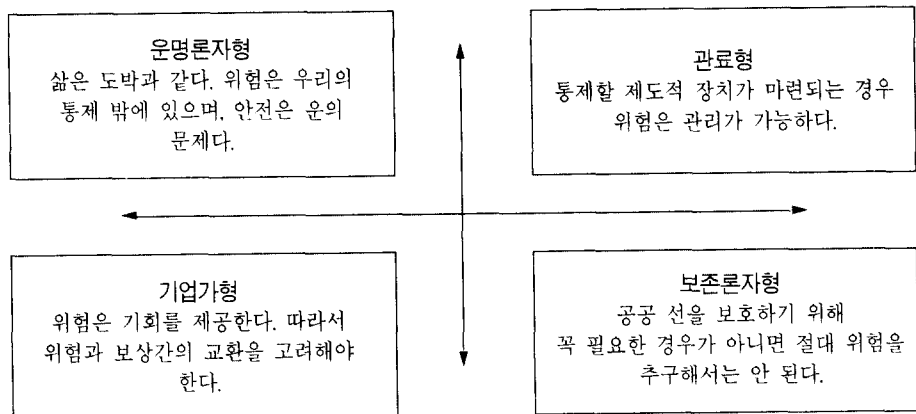
6) 경제학적 분석에서 위험은 효용으로 대체되어 설명된다. 첫째,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위험보다는 자신이 선택하는 대상으로서의 위험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주어지는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클수록 위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셋째, 위험에 노출되는 잠재적 피해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범위가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7)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식량난과 저성장에 시달리는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대량 수입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다.

따라 행동하지 않는가를 심리측정(psychometrics)을 통해 설명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크면 위험을 회피한다. 만일 얻어지는 이득이 크면 위험을 감수한다. 사람들은 이득은 최대화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있고, 결정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적의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는 이유는 최대의 이득을 얻을 확률과 최대의 손실을 얻을 확률을 조합하여 투자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시에 맥락적 요인들의 중요성, 예측되는 손실의 크기, 위험의 질적인 특성, 위험의 원인과 결부해 고려할 신념체계 등을 염두에 둔다. 또한 위험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확률과 결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집단·문화집단간 위험에 대한 인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이재식, 1997; 이순철, 1997).

넷째, 문화론적 접근은 위험을 지각하는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학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선호의 함수를 결정하는, 네 가지 구조화된 문화적 행위유형에 관심을 갖는다(Renn, 1992: 74; Adams, 1995: 33~37; Rayner, 1992: 88~89). 그 내용은 그림2와 같다. 기업가형은 위험을 경쟁시장에서 기회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평등이나 규제 등의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 보존론자형은 형평과 협력이 경쟁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입장이다. 단기적인 이윤추구의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걱정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형은 불확실

그림2 안전에 관한 문화론적 행위유형



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전략이 갖추어진다면,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유형은 조직과 관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운명론자의 입장은 원자화되고 위계화된 개인들로 가득한 사회를 가정한다. 이들은 삶은 도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안전은 준비하고 대비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위험에 대한 기존연구는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론적 접근은 주로 공학적인 설계와 연관되어 있다. 안전공학·인간공학(ergonomics)은 위험확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학(工學)적인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바, 테일러(Taylor, 1911)의 과학적 관리론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학적 접근은 안전시설과 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효용을 중심으로 이론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일차원만을 고려하는 데서 생기는 한계를 갖게 된다. 셋째, 심리학적 접근은 주관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험에 대한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문화론적 접근 역시 위험발생의 객관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표1 위험 분석방법의 유형론적 비교

유형 비교측면	기술론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문화론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기본단위	종합예측치	예측된 효용	주관적 예측효용	공유가치관	공정성·능력
주된 방법	사고발생확률 분석	비용-편익 분석	심리측정	문화유형 분석	사회조사
위험 개념의 적용범위	안전	보편적 사건	개인적 인식	문화적 집락	사회적 이해관계
문제영역	단일차원	단일차원	다차원	다차원	다차원
응용영역	안전공학	의사결정	정책결정·갈등해결·위험에 관한 의사소통체계		

자료: Renn(1992: 57).

이에 반해 사회학적으로 위험을 다루는 방식은 위험의 조직적 측면을 다룬 것 (Perrow, 1984), 대중매체와 언론보도 분석, 위험을 둘러싼 이익집단간 갈등의 연구, 형평과 공정성에 연관된 연구, 계급·사회집단별 위험의 분포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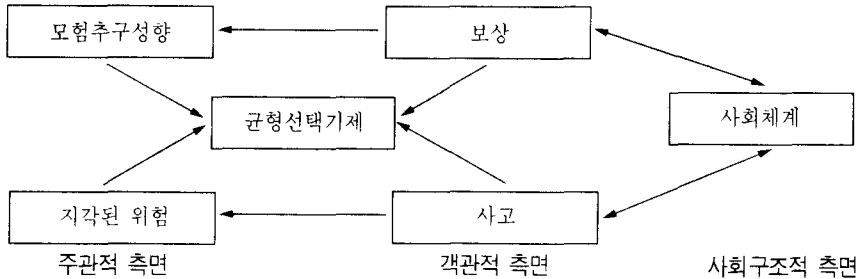
먼저,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1)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할 동기를 얻게 되는가, 즉 어떤 형태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는가? 2) 사회집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조건은 무엇인가, 혹은 상이한 사회집단들간에 위험을 사회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를 들면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는 단순한 비용-편익의 합리적 선택모형만으로 설명되기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 동료집단의 압력, 사회적 신념체계, 기타 구조적 요인 등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은 업무의 일상화와 책임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복잡한 기술에 관한 위험관리업무는 제도화된 공정과 통제 의 일상화 및 확산을 수반한다. 예컨대 부적절한 통제관리와 결합된 조직적 요인들은 기술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접근이 놓치는 조직적 요인들에 대해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체계이론(system theory)은 위험을 사회적·제도적 단위의 한 요소로 간주한다. 위험과 연관된 다양한 지식체계들은 사회내에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선택과 적용의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아나가는 진화적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3과 같은 사회학적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균형선택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개인의 안전의식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밀접한 상호 연관을 갖고 구성된다. 주관적 측면에서 안전의식은 개개인의 모험추구성향과 인지된 위험수준으로 파악된다. 모험추구성향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모험추구성향은 보상과의 관련에서 그 강도가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어떤 형태의 보상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어떤 형태의 사고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보이는 균형선택의 기제는 위험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간의 매개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보상과 모험추구성향간, 그리고 사고와 지각된 위험간의 관계는 각 개인이 어떠한 문화적 가치관

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Adams, 1995: 43). 이 모형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모험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노력을 척도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로 한다.

그림3 위험분석의 통합모형



2) 삶의 질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조작적 정의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공포하면서 비로소 환기되었다. 그는 위대한 사회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과 역량, 그리고 사회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제성장과 상품의 대량생산보다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를 "위대한 사회"라고 본 것이다(Martkides, 1992: 1586). 이처럼 흔히 사용되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 이상의 중요한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전직 프랑스 총리인 크레송은 "일본인들이 프랑스인들보다 소득이 높을지는 몰라도 삶의 질만큼은 프랑스인들이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일본인들이 마치 토끼장과도 같은 좁은 주택에 거주하며, 왕복 세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실을 비꼰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삶의 질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실제'의 측면과 '지각'의 측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반면(이현송,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주관적 측면(subjective well-being; SWB)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이나 행복감을 측정하였다(Diener, 1993).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차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적인 측면에서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논의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도되었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먼저,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다양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개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은 1920년대 미국에서 오그번(William F. Ogburn)의 주도로 시작된 이래, 1966년에는 UN 산하 사회발전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ISD)가 생활지표를 개발했고, 1973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중심이 되어 사회지표체계의 종합화를 꾀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최소 31개 국에서 삶의 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위범주들에 대한 관심이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은 최소한 아홉 가지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음식, 주거 및 관련 서비스(상하수도시설 등),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여가시간, 물리적인 안전, 사회적 안전, 환경과 생태적 조건 등을 들 수 있다(Zapf, 1980; Morris, 197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982)는 이 각각의 하위분야마다 수십 개씩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모리스(Morris, 1979)에 의해 개발된 물질적 삶의 질 지표는 문자해독률, 1세 아이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전도상국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표준치가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윌리엄슨(Williamson, 1987)은 매일 1인당 열량(calorie) 섭취량, 매일 1인당 단백질 섭취량, 영아사망률, 출생시 기대수명 등의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이처럼 삶의 질의 지표개발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welfare)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한편, 사회지표를 통한 삶의 질의 측정은 필연적으로 질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든다. 객관적인 삶의 질의 지표가 높다고 해서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반드시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대한 질적인 평가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프(Zapf, 1980)와 린(Lin, 1991)을 들 수 있다. 자프(Zapf, 1980)는 삶의 질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독일의 사회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사건의 중요도(critical incidence)를 이용하여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방법은 먼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응답자들이 하여금 그 중요성을 부여하게 한 후, 각 측면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구하여, 양자를 조합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⁸⁾ 이때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의 평가는 성별·연령별로 매우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한 플라나간(Flanagan, 1982)은, 현대 서구 유럽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 듣는 전체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린(Lin, 1991)은 중국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적인 사회지표와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삶의 질 경험을 연결시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역시 객관적·주관적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이 주어졌다. 주학중·김경동(1984), 윤종주(1991), 김경동·설동훈(1994), 조명환·김정오·설동훈(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도철·안청시·김경동·이홍구(Shin, Ahn, Kim, and Lee, 1983)가 수행한 공동연구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8) 이때 평가의 대상이 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물질적 복지(물질적 편안함: 의식주, 건강과 개인적 안전), 2) 사람들과의 관계(친척과의 관계, 자녀출산과 양육, 배우자 혹은 이성과의 관계, 친구관계), 3) 사회적 활동(타인에 대한 도움, 정부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4) 개인의 발전과 성취(학습, 교육,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직업·일, 창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 5) 오락·여가(타인과의 사회적 어울림, 독서, 음악감상, 기타 취미활동, 활발한 레크리에이션 참여).

개인이 경험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조건, 개인의 사회경제지위, 생물학적 속성,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만족감을 인과적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편협한 사고의 폐해를 이미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3) 안전과 위험

안전(safety)은 위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념이다(이재식, 1997: 39).

안전을 정의하기 위해 동원되는 개념으로는 위험, 손상(損傷), 위험노출정도 등이다. 위험(hazard)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부실시공된 다리나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등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게나 감염된 바이러스를 보유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는 위험이 된다. 특히 위험은 상황과 사건 모두에서 비롯된다. 위험한 상황(hazardous situation)은 개인이 부실시공된 다리를 건너거나, 의사가 감염된 환자를 다루는 것과 같이 위험요소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위험한 사건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결과가 해로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harm 또는 detriment)은 위험한 사건의 결과 발생하는 개인적 재난의 정도, 혹은 예측되는 피해의 규모를 의미한다(Adams, 1995: 8).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심리적 상처, 질병, 신체적 부상, 혹은 사망 등이다. 따라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란 존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낳는다.

위험노출정도(risk)는 일정기간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혹은 어떤 위험에 노출된 후 손상을 입을 확률로 정의될 수 있다(Adams, 1995; 이재식, 1997). 그렇다면, 위험과 위험정도, 그리고 손상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 = \sum(H_i \times R_i) \quad (1)$$

여기서 D는 예측되는 손상(detriment)을, H는 위험(hazard)을, 그리고 R은 위험노출정도(risk)를 의미한다. 여기서 전체손상(D)은 다양한 위험의 요소들, 예를 들면 폭력배·도둑·산업재해·질병·교통사고·화재·가스사고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각 요소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합으로 표기하였다. 앞에서 정리한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평균적인 삶의 질은, 그것이 양적인 것이건 아니면 질적인 것이건,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삶의 질이 저하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L_r = QL_p - D \quad (2)$$

여기서 QL_r 은 실제 삶의 질, QL_p 는 가능한 삶의 질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의 (평균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2)를 (1)에 대입하면,

$$QL_p - QL_r = \sum(H_i \times R_i) \quad (3)$$

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QL_p - QL_r$ 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위험요소(H)를 줄이거나, 위험노출정도(R)를 줄이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를 줄이는 방식이 그 대안이 되고 있다.

먼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은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붕괴위기에 처한 교량을 철거·보수하거나, 굽어 있는 도로를 곧게 펴거나, 혹은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위험노출정도를 줄이는 것은 개개인의 모험추구성향(risk taking propensity)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도로상태와 무관하게 과속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개인간 모험추구성향의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중한 인간(homo prudence)이 한쪽 극단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모험하는 인간(home aleatorius)이 자리잡고 있다.⁹⁾ 두 가지 인간형의 비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신중한 인간’에게 위험은 제거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위험이 제거된 사회는 확실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위험제거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은 개인의 착오나 실수에 기인한다. 알게 모르게 안전에 관한 논의는 위험제거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리고 있다. 반면에 ‘모험하는 인간’은 불확실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즐기는 사람이다. 위험노출정도(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은 명백히 구별된다. 위험노출정도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불확실성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나친 모험추구는 삶의 질을 낮추지만, 동시에 강박증을 가질 정도의 안전추구도 삶의 질을 낮춘다고 가설화할 수 있다.

3. 삶의 질의 여러 차원과 그 결정요인

1) 삶의 질의 여러 차원

삶의 질과 안전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7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을 하였으며, 최종단계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은 성 및 연령에 따른 할당 표집방법을 택하였다. 전체표본의 크기는 80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문지 검토 및 부호화를 거친 후 SPSS와 STAT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9) ‘모험하는 인간형’의 모토는 영국 초기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다음 시구에서 잘 드러난다: “신중함은 부유하나 못생긴 늙은 독신녀의 무능함의 다른 표현이다”(Prudence is a rich, ugly old maid courted by incapacity). “위험을 택하지 않고는 이득도 없다”는 원칙이 이를 잘 말해 준다(서강목, 1997 참조).

표2 삶의 질의 여러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	기본생활 (요인1)	안전 (요인2)	사회성 (요인3)	자아성취 (요인4)	공통분산비 (h ²)
입는 것	0.77952	-0.02630	0.17391	0.17670	0.66981
먹는 것	0.77359	0.08034	0.10255	0.10477	0.62639
주거	0.75765	0.15850	0.14203	0.08116	0.62591
소득	0.49466	0.24215	0.04981	0.39551	0.46223
안전	0.01465	0.87597	0.05433	0.18148	0.70245
건강	0.31327	0.57543	0.31067	-0.02899	0.70887
가족관계	0.15394	0.21371	0.81553	0.10225	0.74492
인간관계	0.17191	0.04028	0.80934	0.26181	0.75475
자아실현	0.12523	0.12566	0.14874	0.80551	0.80342
문화생활	0.17858	0.02106	0.17349	0.80401	0.52661

주: 회전 후의 요인부하값.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욕구위계(Maslow, 1954)를 준거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10개 영역을 선정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1점부터 5점까지 값을 부여하였다.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만족도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모두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관계(3.46) > 먹는 것(3.45) > 사회적 인간관계(3.42) > 주거(3.21) > 입는 것(3.18) > 건강(3.13) > 자아실현(2.87) > 안전(2.84) > 소득(2.82) > 여가문화(2.79). 가족관계와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안전·소득·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측면들을 개념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질의 여러 차원을 분리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네 가지 차원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묶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기본생활(의식주 및 소득과 관련된 기본적인 차원), 안전(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 건강), 사회성(가족·친족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자아성취(자신

의 능력을 발휘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여가 및 문화생활).

삶의 질은 이처럼 크게 네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자아성취의 측면에서는 학력이나 소득 등의 객관적인 차원에 따른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에 안전문제나 사회적 교류의 측면에서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안전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보장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 정착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각각의 삶의 질의 차원들을 척도로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계수는 표3과 같다.

표3 삶의 질의 여러 차원의 척도구성: 요인점수

변수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입는 것	0.41222	-0.17750	-0.01860	-0.03659
먹는 것	0.42186	-0.05163	-0.08838	-0.09025
주거	0.39956	0.02013	-0.06144	-0.12270
소득	0.18646	0.12118	-0.17843	0.19465
안전	-0.14565	0.81488	-0.17315	0.04515
건강	0.06674	0.45525	0.10724	-0.20613
가족관계	-0.10189	0.00797	0.63510	-0.13698
인간관계	-0.09818	-0.17682	0.62896	0.00895
자아실현	-0.11928	-0.00705	-0.08361	0.59090
문화생활	-0.07791	-0.11980	-0.04929	0.58507

이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각 삶의 질의 차원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¹⁰⁾ 각각의 요인점수로 수량화한 삶의 질의 척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삶의 질의 척도가 가장 많은 변이를 보여주는 반면, 안전에 관한 척도는 가장 적은 변이를 보여준다. 또한 다른 차원들에 비하면 안전에 관한 척도가 가장 정규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두 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하나는 심리학

10) 예를 들면 안전에 관한 삶의 질 점수는 $(-.17750 \times \text{입는 것} - .05163 \times \text{먹는 것} + .02013 \times \text{주거} + \dots - .11980 \times \text{문화생활})$ 로 계산할 수 있다.

자 디너·에몬스·라슨·그리핀이 개발한 '보통 때 느끼는 행복감'으로 0(극도로 불행)에서 10(극도로 행복) 사이의 11점 척도이고(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 1985; 조명환·김정오·설동훈, 1995),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1점부터 5점 사이의 5점 척도이다. 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399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합산하여 하나의 복합척도로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 새로운 복합척도를 '전반적 삶의 질'로 부르기로 한다.

표4에는 전반적 삶의 질과 각 차원별 삶의 질의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차원별 삶의 질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각 차원별 삶의 질 척도가 제각각 다른 영역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전반적 삶의 질과 각 차원별 삶의 질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안전'이 '전반적 삶의 질'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는 '자아성취'와 '기본생활' 및 '사회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이 '전반적 삶의 질'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인에게 안전은 공기와 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와 물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결여된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듯이, 대부분의 한국인은 안전이 결여된 상태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이란 바로 이러한 현상의 표출로 생각된다.

표4 전반적 삶의 질과 각 차원별 삶의 질의 상관관계수표

	전반적 삶의 질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전반적 삶의 질	1.0000				
기본생활	.3267***	1.0000			
안전	.1646***	-.0022	1.0000		
사회성	.3011***	.0006	-.0024	1.0000	
자아성취	.3651***	.0025	-.0045	-.0016	1.0000

2) 모험추구성향과 강박증

모험추구성향(propensity to take risks)이란 문화적·심리적 혹은 기타의 요인에 의해 안전보다는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위험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진을(thrill)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인 효용 외에도 성공확률이 다소 낮더라도 성공했을 때 돌아올 반대급부가 클 경우에 택하게 되는 강한 승부욕, 위험의 요소가 있더라도 그 확률이 매우 낮다고 인식해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과 적용영역을 고려해서, 모험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여섯 개 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은 음주운전, 대학입시, 도로무단횡단, 신용대여, 날씨에 대한 준비,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을 추구하는 경우를 0,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를 1로 하여 점수화하고, 모험추구성향의 척도는 이러한 값을 단순누적하여 사용하였다.¹¹⁾ 개별 문항별 응답결과는 표5에 있는 바와 같다.

표5 유형별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의 유형	%
저녁회식에서 맥주를 한 병 정도 마신 후 운전해 집에 간다	25.5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안 좋아도 재수를 각오하고 소신지원한다	33.3
깊은 밤 지나는 차가 없으면 빨간 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넌다	41.1
가까운 친구가 요구하면 1,000만원을 신용으로 빌려준다	41.3
비율 확률이 50%라도 아침에 우산을 두고 나온다	46.4
암에 걸릴 확률이 10%일 때 암보험에 들지 않는다	48.4

여섯 항목 중 모험추구 성향이 가장 낮은 것은 음주운전으로서 약 4분의 1의 응답자만이 음주운전을 강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암에 대한 준비는 암에 걸릴 확률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보험에 들지

11) 좀더 적절한 방식은 삶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과 마찬가지로 모험추구의 다양한 차원들을 골라내어 각 차원별 척도를 구성하고, 이 척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0, 1의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합을 사용하였다.

않겠다고 함으로써 모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험추구성향은 사건의 발생확률, 사건발생시의 예상되는 피해 등에 반비례해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험추구성향은 경제학적 모형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의 모험추구성향을 단순합산하여 개인별 모험추구성향의 척도를 구성한 결과 그 분포는 표6과 같다. 여섯 개의 선택지 중 응답자들은 평균 2.36개의 위험을 선택하였고, 표준편차는 1.38개였다. 한편, 모험추구성향은 개인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4, 40대가 1.9, 50대가 2.0으로서 20대의 모험추구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1.96) 보다는 남성(2.77)의 모험추구성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발견은 왜 자동차보험회사가 젊은 남성미혼자들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표6 개인별 모험추구성향의 분포

모험추구선택수	빈도	%
0	72	9.21
1	140	17.90
2	234	29.92
3	174	22.25
4	107	13.68
5	44	5.63
6	11	1.41
전체	782	100.00

강박증(obsession)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반복되며, 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 증상을 의미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포함한다. 강박관념 또는 강박사고에는 자아 이질적(ego-dystonic) 관념·사고·상상 혹은 충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포함한다. 강박행동은 특정한 행동 또는 일련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주로 셈하기, 순서짓기, 만지기, 확인하기, 씻기 등이다. 강박행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끌거나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도한 경우가 많다(이훈진, 1989).

표7 강박관념 테스트

강박관념 측정 항목	%
아침에 세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9.2
저녁에 옷을 건다거나 개어 놓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다	10.7
병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중전화의 사용을 꺼린다	10.7
매우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주저하게 된다	13.9
우연히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치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14.6
나는 병균이나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편이다	18.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누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18.6
외출하려고 옷을 입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21.9
동물을 쓰다듬고 나서는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걱정한다	21.9
돈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내 손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24.0
내가 하는 단순한 일상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27.0
내가 갖고 있는 주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32.4
매사를 제시간에 끝낼 수 없어 일이 늦어진다	33.1
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따르려고 한다	35.7
나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37.4
어떤 일을 매우 주의 깊게 했어도 그것이 아주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4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매우 엄하게 나를 키우셨다	46.2
편지를 부치기 전에 쓴 것을 몇 번씩 확인한다	46.3
어떤 일(가령 가스렌지·수도꼭지·방문·열쇠 잠그는 것 등)을 몇 번씩 확인한다	58.2

강박관념의 측정도구는 호드슨과 라흐만(Hodgson and Rachman, 1972)이 제작한 것을 조대경(1985)이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확인·지체·청결 등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모두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19개를 골라 척도로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강박

증 척도의 평균은 4.9이며, 표준편차는 3.40이었다. 이들 집단 중 상위와 하위 각 20%에 해당하는 집단과 그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집단을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강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험추구성향은 현저히 낮으면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안전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신이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비강박집단은 정상집단이나 강박집단에 비해 모험추구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8 강박관념 정도에 따른 집단간 비교

집단	사례수	위험추구성향	불안도평가	피해가능성
비강박집단	134	2.753	3.708	3.029
정상집단	466	2.354	3.888	3.206
강박집단	149	2.099	4.026	3.234
전체	749	2.376	3.883	3.180
F값		7.78***	6.33**	2.64

* $p < .05$ ** $p < .01$ *** $p < .001$

주: 모험추구성향은 0에서 6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모험추구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도평가는 0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가능성은 0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자신이 안전사고의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모험추구성향은 강박관념과 부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박관념이 강할수록 모험추구행위는 약해진다. 그러나 표9를 보면, 과거의 사고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험추구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사고경험을 통제하면, 강박관념이 모험추구를 결정하는 효과는 더 강화된다. 이는 한 번 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biased distribution hypothesis)을 지지한다(Greenwood and Woods, 1919; 이순철 1997에서 재인용, 그림4 참조). 표9에서는,

모험추구성향이 연령에 반비례하여 젊은 층 특히 20대에 가장 높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그림5 참조).

표9 모험추구성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강박관념	-.056***	-.063***	-.033*	-.040**
사고경험		.055**		.037*
남성			.761***	.739***
연령			-.086**	-.094***
연령 ²			.001*	.001*
상수항	2.649***	2.488***	4.292***	4.350***
R ²	0.019	0.029	0.162	0.168

*p<.05, **p<.01, ***p<.001

그림4 강박관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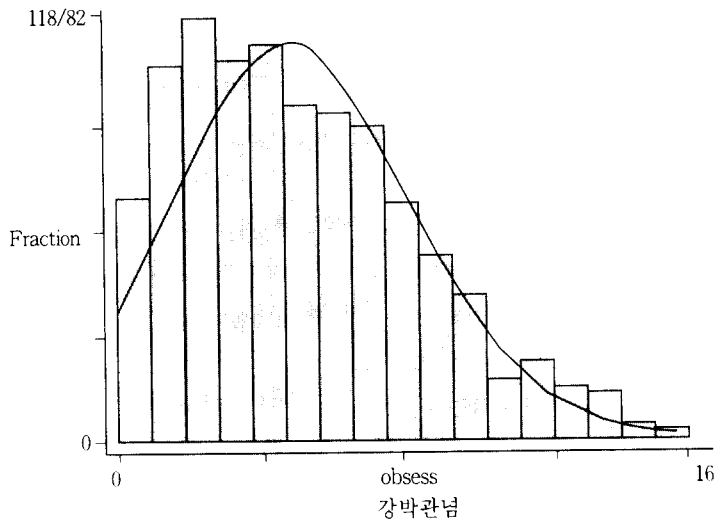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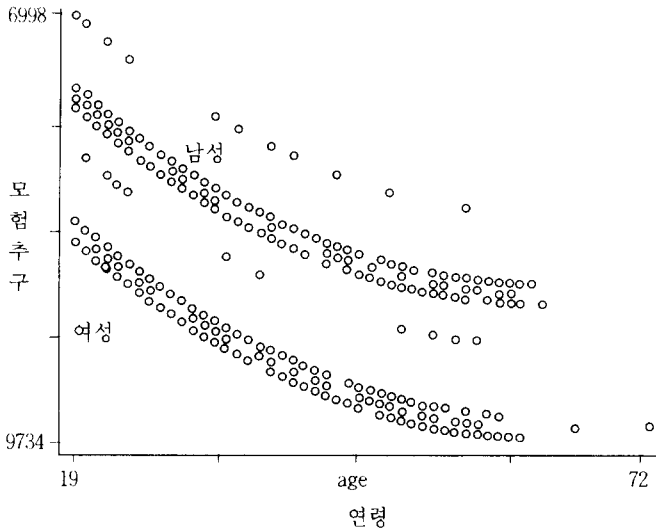


그림5 연령별·성별 모험추구성향



3) 안전사고

안전사고 경험, 자신이 안전사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많은 종류의 안전사고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행하였다(설동훈, 1996: 47-54 참조).

집락분석은 유사한 요소를 같이 묶고 상이한 요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기법인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 세부기법 가운데 위계적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 techniques)을 선택하였고, 사례들간의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또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Z점수를 구하여 원래 값에 대체하였고, 집락화의 방법으로는 집단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집락화 결과를 공간상에 배치하여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차원척도기법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척도기법은 최초의 형상으로부터 반복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공간상의 거리가 가능한 한 본래의 근접성을 잘 나타내도록

표10 사고유형별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의 평균

구분	과거 사고피해 정도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
도둑	.59	1.59	.52
폭력배	.27	1.44	.82
성추행	.08	1.10	.69
학교폭력	.19	1.19	.84
교통사고	.78	2.09	.55
화재	.14	1.40	.25
가스사고	.03	1.39	.23
유해식품	.31	1.40	.58
질병	.85	1.85	.48
부실공사	.28	1.48	.86
산업재해	.15	1.24	.72
수돗물	.34	1.57	.87
대기오염	.43	1.84	.93
원자력사고	.02	1.03	.94
지진	.04	.93	.97
실업·실직	.34	1.38	.58
전체 평균	.30	1.43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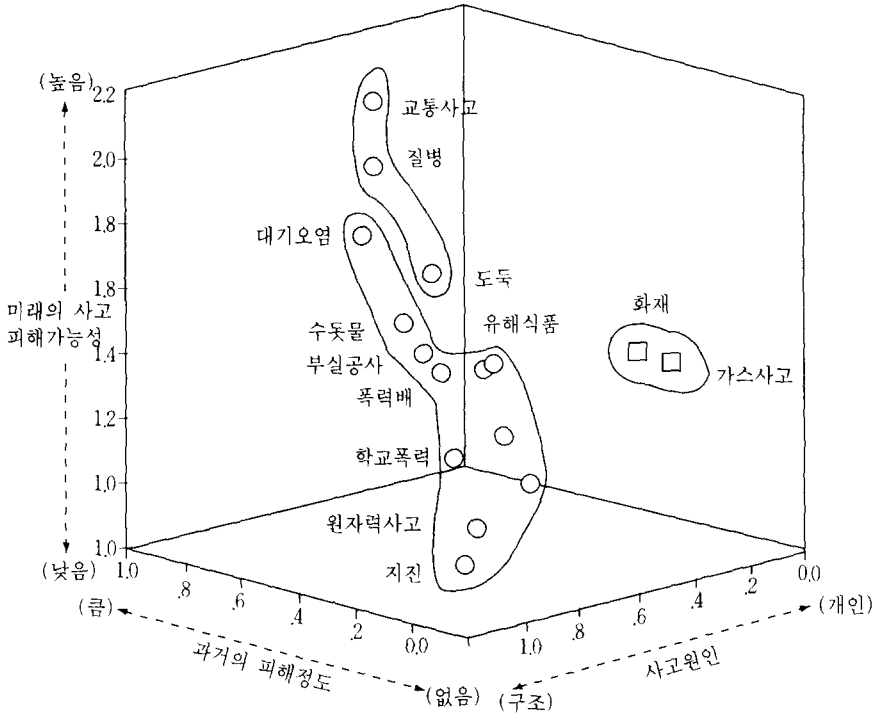
- 주: 1) "과거 사고피해 정도"는 "피해 입은 적이 없다"에 0점, "피해는 입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에 1점, "피해규모가 다소 큰 편이었다"에 2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컸다"에 3점, "피해규모가 치명적이었다"에 4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2)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3점, "매우 높다"에 4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3) "사고 원인 구조귀속"은 "피해자의 부주의"에 0점,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1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4)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사례수는 매우 다양하다.

오차(stress)를 줄여 나가면서 최종 해(solution)를 구하게 된다. 오차의 크기는 도출된 거리가 본래의 자료에 어느 정도 잘 근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¹²⁾ 계산 결과

12)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 및 사고피해의 원인이라는 세 개 변수를 기준으로 위계적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나무그림(dendrogram)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집락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상이성 계수이다. 즉 수치가 작을수록 집락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안전사고들간의 거리와 집락화를 시각적으로 좀더 명확히

과 오차(Kruskal's stress)는 0.012로, 이는 원래 자료가 거의 오차 없이 2차원 좌표 평면에 정확히 그려졌음을 의미한다($R^2=0.999$). 그리고 이 그림에 나타난 각 점을 타원의 형상으로 묶어, 3차원 평면에 표시하면 그림6과 같다.

그림6 3차원 공간에 나타난 안전사고 종류



세 가지 안전사고의 집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교통사고·질병·도둑으로 구성된 첫째 집락은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와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고, 사고원인으로 개인의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점이 거의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이다. “과거 피해정도와 미래의 피해위험이 모두 가장 높게 인지된 것이지만, 조심하면 그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로 파악할 수 있다. 대기오염·수돗물

나타내기 위하여, 다차원척도기법의 2차원 해를 구하여 좌표평면상의 여러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부실공사· 폭력배· 유해식품· 실업· 지진· 원자력사고· 성추행· 학교폭력· 산업재해로 구성된 둘째 집락은 “사고피해를 입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간주된다.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이나 사회체계에 있어 예방은 어렵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가벼운 사고피해 경험이 확산되어 역치(閾值, threshold)가 높아진 안전사고”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국가나 사회의 체계적 개입을 원하는 부문으로 이해된다. 화재·가스사고로 구성된 마지막 집락은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에 비해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고원인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사고피해는 별로 없으나 미래의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고”로 이해된다. 이 세 집락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계산한 평균값은 표11과 같다.

표11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 복합척도의 평균

	유형1 (조심하면 피해 극소화)	유형2 (체계적 개입 필요)	유형3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
과거	.74	.22	.09
미래	1.84	1.33	1.40
원인	.52	.80	.24

- 주: 1) “과거 사고피해 정도”는 “피해 입은 적이 없다”에 0점, “피해는 입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에 1점, “피해규모가 다소 큰 편이었다”에 2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컸다”에 3점, “피해규모가 치명적이었다”에 4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2)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3점, “매우 높다”에 4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3) “사고 원인 구조귀속”은 “피해자의 부주의”에 0점,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1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4)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사례수는 매우 다양하다.

표12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의 안전사고 피해정도가 클수록, 또 사고원인이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미래의 안전사고 피해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의 안전사고 피해정도와 안전사고의 원인 평가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

고 발생원인이 구조 또는 개인에 있는가는 기존 안전사고 피해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 가지 유형의 안전사고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12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 복합척도간 상관관계수표

	유형 1		유형 2		유형 3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미래	.261**		.321**		.101*	
원인	.063	.109*	.049	.158**	-.010	.106*

주: 사례수 756명. 양측 검정의 결과 * < .01, ** < .001.

4) 안전과 삶의 질

안전과 삶의 질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3과 표14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안전사고 경험'과 '미래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안전과 관련한 삶의 질'을 낮춘다. 전반적 삶의 질과 사회성 등 다른 측면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약하다.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피해정도가 가장 큰 교통사고·질병·도둑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개인적 노력이나, 자신의 주관적 안전의 이 두 변수는 '자아성취와 관련된 삶의 질'과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모험추구행위를 기피하며, 안전의식 수준과 강박관념은 별개의 개념이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통제가능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안전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있다는 의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안전사고를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하려는 태도', 즉 안전의식이 강할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그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

한국사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수록, 다시 말해 지각된 위험의 크기가 작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삶의 질의 네 차원 중 안전에서 이 변수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또 집 주위 환경이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이 낮아진다.

표13 삶의 질의 각 차원과 안전관련변수간의 상관계수표

	전반적 삶의 질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안전사고					
피해정도	-.126***	-.037	-.246***	-.105**	-.002
피해가능성	-.163***	-.061†	-.309***	-.098*	-.046
개인적 노력	.194***	.116**	-.034	.031	.134***
안전의식수준	.115***	.038	.055†	.032	.130***
사회체계					
피해원인(D)	-.092*	-.036	-.138***	-.051	-.055†
지각된 위험					
안전상태	.161***	.009	.314***	.005	.079*
주거환경	-.114**	.037	-.230***	-.018	-.082*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성향	-.086†	-.036	.028	-.036	-.056†
강박관념	-.032	.057†	-.160***	-.136***	-.011
기본속성					
남성(D)	-.073*	.018	.046	-.069†	-.015
연령	-.079*	-.034	-.054	-.070*	.029
기혼자(D)	-.010	-.052	-.053	-.052	.011
교육년수	.1221**	.147***	.027	-.036	.017
가족전체소득	.157***	.183***	-.005	.001	.081*
자가소유(D)	.074*	.170***	.073*	.025	.006

† <.10 * <.05 ** <.01 *** <.001, N=565.

주: (D)는 가변수.

표14 삶의 질의 각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변수

	전반적 삶의 질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안전사고					
피해정도	.051	-.026	-.119**	-.053	.027
피해가능성	-.126**	-.073	-.190***	-.075	-.021
개인적 노력	.168***	.084†	.033	.066	.125*
안전의식수준	.056	.024	.020	-.158***	.093*
사회체계					
피해원인(D)	.027	-.011	.054	-.026	-.030
지각된 위험					
안전상태	.105*	.005	.185***	.030	.052
주거환경	.024	.044	-.101*	-.025	-.029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성향	.048	.029	.012	-.047	-.014
강박관념	-.026	.053	-.063	.025	-.028
기본속성					
남성(D)	.030	.043	.038	-.057	.000
연령	.163**	-.023	-.082	-.107	.040
기혼자(D)	.099†	.001	-.045	-.018	-.043
교육년수	.075	.119*	.037	-.083	.009
가족전체소득	.112**	.132**	.056	.005	.061
자가소유(D)	.069†	.152***	.079*	.026	-.019
수정 R ²	.115	.066	.174	.029	.019

† < .10, * < .05, ** < .01, *** < .001, N=565.

주: (D)는 가변수.

강박관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다. 안전사고 피해가 큰 사람이 강박관념이 강하고,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안전에 대하여 우려한다.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교통사고와 같이 조심하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구조에서 찾는다. 모험추구성향은 미미한 정도지만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호 +).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모험추구성향은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가 소유 여부'가 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매슬로(Maslow, 1954)는 일찍이 그의 욕구단계설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차적·근본적 욕구인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안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물론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인위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처방은 그 한계를 노정하였다(쓰리마일 원자력발전소사고,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사고, 보팔 화학공장사고 등). 산업사회의 근본적 추동 논리인 개발과 진보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Beck, 1995; O'Neill, 1995).

급속한 공업화는 '위험'의 일상화를 낳았다. 올리히 벡(Beck, 1992)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값비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전실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한 여러 대책이 계속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삶의 질과 안전에 관한 개념정리를 거쳐, 신체적·심리적 안전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밝히고 있다. 안전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을 강구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항과 그것의 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사회는 모험과 안전의 균형점(trade-off point)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험추구적 행동은 편의(convenience)와 효율(eficiency)을 동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율(thrill)과 긴장감(suspense)을 수반하여 인간의 삶에 활력과 윤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용감함’ 일을 한 모험가는 세인의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무모한’ 모험적 행동은 치기(稚氣)나 맹목(盲目) 등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반면, 안전 추구적 행동은 ‘꼼꼼하고 치밀한’ 예방책(preparation)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강박증(obsession)으로 간주된다. 이는 그림7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7 안전과 모험추구 행동의 개념도식



그림7을 보면, 모험과 안전이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용감함’과 ‘무모함’, ‘꼼꼼함’과 ‘강박증’을 가르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B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행동은 모두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B와 C의 가치, 말하자면 안전추구행동과 모험추구행동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행동의 다양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안전의식에서도 참조가 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안전의식이란 모험추구의식과 안전추구의식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안전의식이란 결코 B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관점이다. 그림7에서 보듯이, B 지점은 하나의 극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더기 무서워도 된장 담그는 행동”은 합리적 행위이다. 이를 안전의식에 관련지어 생각하면, 학습이론을 도입할 여지가 발견된다. 조심하는 버릇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위험은 겪어 봐야 안다”는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두번째 중요한 발견은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안전의식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첫번째 유형은 교통사고, 질병, 도둑 등으로서 과거 피해정도와 미래의 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게 인지되고 있지만, 조심하면 그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로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의 안전문제는 주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반면에 대기오염·수돗물·부실공사·폭력배·유해식품·실업·지진·원자력사고·성추행·학교폭력·산업재해 등 가장 많은 안전사고를 포괄하는 두번째 집락은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체계적 개입을 요구하는 부문이다. 이 부문의 안전의 제고는 공공재로서의 사회적·자연적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세번째 집락은 화재 및 가스사고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으나, 미래의 불안요소가 가장 강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다차원공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부문별 안전관리정책을 통합하는 사회체계 수준에서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의 사고유형이다. 부실시공이나 산업재해, 대기오염 등은 모두 경제적인 유인체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공유지의 비극’형 사고들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표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영역내에서 활용되는 자원과 매체, 그리고 동기화의 요소들이 동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들의 가치관 및 태도 등은 사회경제적

표15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원: 영역, 매체, 동기화요소

자원	영역	일반적 매체	동기화의 요소
돈	경제	자금의 이전	경제적 인센티브
권력	정치	힘·권위	처벌·복종
사회적 영향력	사회체계	평판·보상	신뢰·위신
가치	문화	설득·의미	유대감, 문화적 통합
증거	과학	방법론·수사법 (rhetoric)	예측된 영향력

배경요인들에 의해서 의미있는 변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곧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행정적·법적 규제를 통한 안전문화의 사회화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모험추구성향에 따른 부분집단을 표적(target) 집단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의 하나는 신체적·심리적 안전이 삶의 질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안전과 삶의 질은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관적 측면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삶의 질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안전 자체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안전사고의 피해경험과 주변의 환경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 보인다. 앞의 그림7을 예로 들면, 삶의 질은 개개인의 강박증이나 무모함이 극단으로 치우진 사회에서 가장 낮고, 꼼꼼함과 용감함을 가로지르는 경계선 주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삶의 질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모험추구와 신중함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는 사회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좀더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교육 및 홍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반명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안전사회(safe society)는 소극적으로 위험 또는 재난으로부터의(from) 방어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 추구로서의(to) 의미로 확대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총체적인 안전문화의 생활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1995),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김경동·곽영우·문옥표·김호섭·박환무·이종구·이원덕·김정탁·이연·정연구(1995), 《일본의 위기대응 체제와 행위에 관한 연구: 한신(阪神)대진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연구원.
- 김경동·설동훈(1994),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95~155.
- 김명언(1997),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일고”, 《심리과학》 6(1): 27~38.
- 김병관·박준식(1995), “삶의 질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연구의 검토”, 《사회발전연구》 1: 11~24.
- 김종길(1996), “‘위험사회’에서의 환경문제 발생논리와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30(겨울).
- 김필동·김선근·조성검·박대식·노태천·윤정로·노병일·노중기(1995), 《삶의 질: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의 생산과 삶의 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서강목(1997), “블레이크와 자본주의 문명”, 《녹색평론》 35: 34-52.
- 설동훈(1996),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조덕(1996), 《산업안전 선진화에 관한 기초연구: 산재 예방 특별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유재현·박요한·서상옥·민소영·박정덕·이명구·김은희(1996), 《안전관련체계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종주(1991), “한국사회의 사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 II》, 서울여자대학교, pp. 807~902.
- 이순철(1997), “운전자행동의 심리학적 연구”, 《심리과학》 6(1): 11~26.
- 이재식(1997), “안전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행동중심적 접근과 인간공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심리과학》 6(1): 39~63.
- 이현승(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 269-301.
- 이훈진(1989), “우울-비우울-강박집단의 문제해결과제 반응양식 및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현진·장경섭·김영정·김익기·김병관·조병희·이세용·구도완(1997), 《삶의 질: 신체

- 적 심리적 안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조대경(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대한 일연구: Maudsley 강박행동목록 표준화”, 《학생연구》 20(1).
- 조명한·김정오·설동훈(1995),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학중·김경동(1984), “국민문화지표 설정을 위한 사회지표론적 모색”, 《정신문화연구》 (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I: 해설편》.
- Adams, John(1995), *Risk*, London: UCL Press.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lrich(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Press.
- D'Antonio, William V., Masamichi Sasaki and Yoshio Yonebayashi(eds.) (1994), *Ecology, Society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Diener, Ed, R. A. Emmons, R.J. Larsen, and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d. (1993),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Flanagan, John C. (1982),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 State of the Ar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3: 56~59.
- Greenwood, M., and H. M. Woods(1919), “A Report on the Incidence of Industrial Accidents upon Individuals with Special Reference to Multiple Accidents”, *British Industrial Fatigue Research Board* 4.
- Hodgson, R. J. and S. J. Rachman(1972), “The Effects of Contamination and Washing in Obsessional Patient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0.
- Inkeles, Alex(1994),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 William V. D'Antonio, Masamichi Sasaki and Yoshio Yonebayashi (eds.), *Ecology, Society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Krimsky, Sheldon, and Dominic Golding (eds.) (1992), *Social Theories of Risk*, London: Praeger.
- Lin, Nan (1991), "Quality of Life in Urban China: A Model and Data from Shanghai", *The Chinese and their Failure: Beijing, Taipei, and Hong Kong*, Mimeograph.
- Luhmann, Niklas (1993), *Risk: A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Aldine de Gruyter.
- Markides, Kyriakos S. (1992), "Quality of Life", in Edgar F. Borgatta and Marie L. Borgatta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MacMillan.
- Maslow, Abraham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aslow, Abraham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orris, B. R. (1979), *Measuring the Condition of the World's Poor: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New York: Pergamon Press.
- OECD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O'Neil, John (1995), "On the Liberal Culture of Child Risk: A Covenant Critique of Contractarian Theory",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ren* 7: 1-18.
- Perrow, Charles (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Rayner, Steve (1992), "Cultural Theory and Risk Analysis", in Sheldon Krimsky, and Dominic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London: Praeger.
- Renn, Ortwin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in Sheldon Krimsky, and Dominic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London: Praeger.
- Schumpeter, Joseph A. (197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Allen and Unwin.
- Shin, Doh Chull, Chung-Si Ahn, Kyong-Dong Kim, and Hong-Koo Lee (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393~416.
- Taylor, Frederick W. (1911), *Principles of Management*, New York: Harper.
- Williamson, John B. (1987), "Social Security and Physical Quality of Life in Developing Nations: A Cross-Nat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
- Zapf, Wolfgang (1980), "The SPES Social Indicators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Alexander Szalai and Frank M.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London: Sage.

abstract

An Emperical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d Psycho-Physical Safety

Hyun-Chin Lim · Jaeyeol Yee · Kwang-Min Park · Dong-Hoon Seol

Unexceedingly rapid industrialization in Korea produced not only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but many side effects including safety problems. This study, utilizing the survey data on 800 responden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psycho physical safety, reveals several findings as follows: 1) safety is one of the key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2) people usually take an equilibrium between risk and safety, although the equilibrium point differs by culture, social system, and other demographic traits, 3) acc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demanding a different approach on the cause, process, and solution in safety-related acciden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mplies tha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we should prescribe different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accidents.